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작년 4분기 GDP 등 상향 조정… 견조한 성장세 지표들
- CNBC: 연준 이사 Christopher, “연준 금리 인하 서둘지 않아”

[미국 금융]
- CNBC: 2년물 국채 수익률 상승… 투자자들 금리 전망 주시
- WSJ: 올해 1분기 S&P 500, 2019년 이래 최고로 예상

[뉴욕시]
- Bloomberg: 맨해튼 중심부 진입 ‘혼잡세’가 의미하는 것은?

[미국 생활]
- CNN Business: 뉴잉글랜드 일부 대학, 내년부터 학비로 9만 달러 넘는다

[에너지]
- WSJ: 지난주에 미 원유 재고 3백20만 배럴 증가
- WSJ: 올해 휘발유 가격이 평소보다 더 오르는 이유?

[전기차]
- Bloomberg: 테슬라 2만5천불 전기차 출시하면 1백년된 조립 라인 방식 사라져
- WSJ: Fisker, 2023년 전기차 모델 가격 인하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Bloomberg: 아마존, AI 데이터 센터에 1천5백억 달러 투자
- Bloomberg: Microsoft, 챗봇 속임수 막는다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Key Gauges of US Economy Advanced at Healthy Clip to End 2023
작년 4분기 GDP 등 상향 조정… 견조한 성장세 지표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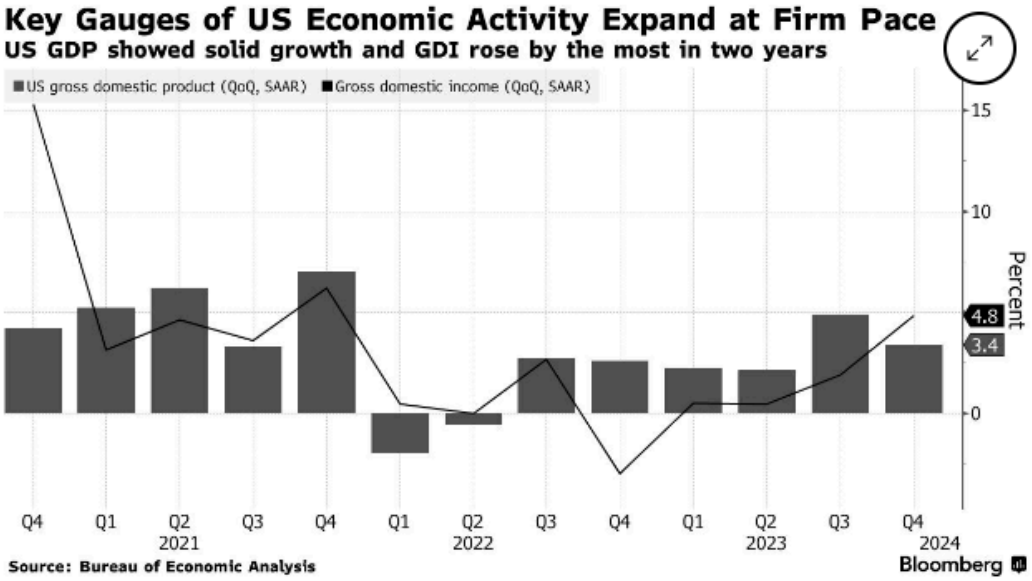
- 미국 경제 활동의 두 가지 지표가 작년 하반기에 강하게 나타나 미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작년 4분기 GDP가 연율로 3.4%로 상향조정되었다. 강한 가계수요와 비즈니스 투자에 힘입은 것으로 관련 연방 데이터는 목요일 발표됐다.

- 같은 기간 국내총수입(GDI)도 4.8%로 상승해 지난 2년간 가장 크게 성장했다.

- GDI는 상품과 서비스 생산에 따라 얻은 소득과 비용을 측정한 것인데 반해 GDP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말한다.

- 한편 조정된 세전 기업 수익도 4.1% 상승, 지난 2022년 중반 이후 가장 크게 성장했다.



Bloomberg 기사

CNBC: Fed's Waller still sees 'no rush' to cut rates amid sticky inflation data
연준 이사 Christopher, "연준 금리 인하 서둘지 않아"

- 연준의 Christopher Waller "최근 실망스러운 인플레이션 지표가 연준의 금리 인하를 보류해야 한다는 점을 확신시켜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올해 하반기 금리 인하를 배제하지는 않았다. 2% 금리 목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한적인 금리 조치를 좀 더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그러나 그는 인플레 하락을 기대하는 추가 진전이 있는 만큼 올해 금리 인하 논의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CNBC 기사

[미국 금융]

CNBC: 2-year Treasury yield rises as investors mull interest rate outlook
2년물 국채 수익률 상승… 투자자들 금리 전망 주시

- 투자자들이 연준 관리들의 최근 발언과 주요 경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 향후 금리 경로를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미 국채 수익률이 상승했다.

-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20%로 변동이 없었지만 2년물 수익률은 3 베이시스 포인트 오른 4.60%로 나타났다. 수익률과 채권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며 1 베이스 포인트는 0.01%를 말한다.

- CME Group의 FedWatch 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오는 6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60%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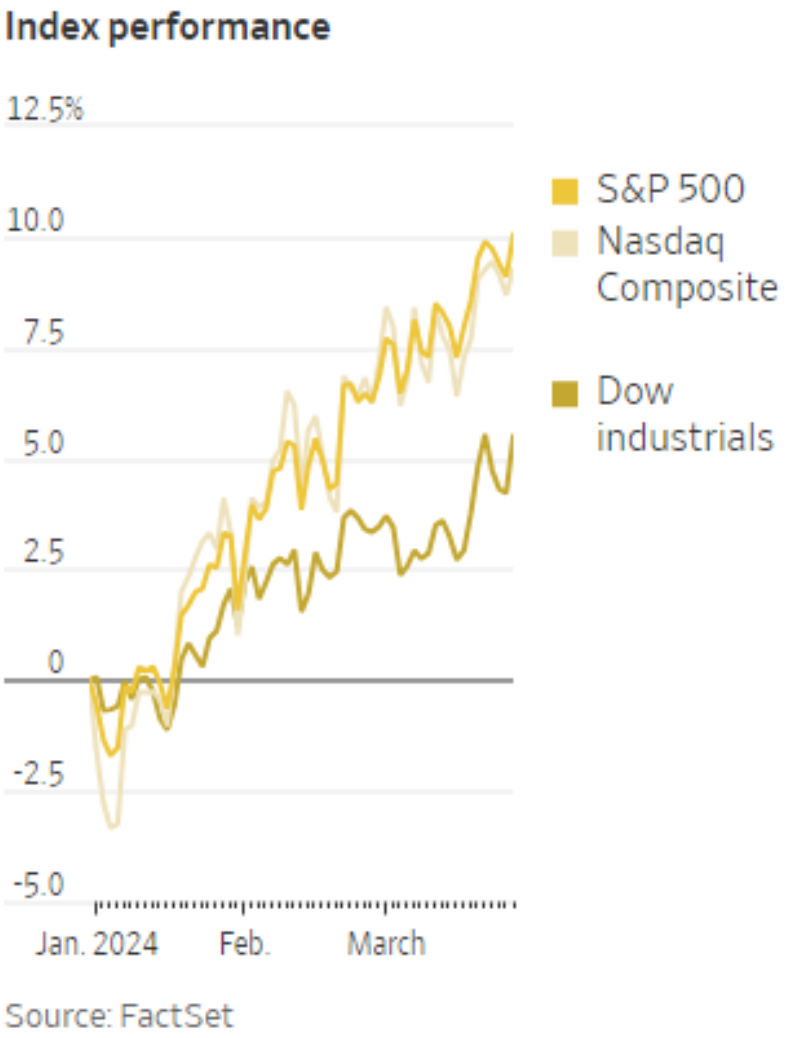
TREASURYS

TICKER	COMPANY	YIELD	CHANGE
US1M	U.S. 1 Month Treasury	5.368	0.015
US3M	U.S. 3 Month Treasury	5.36	-0.003
US6M	U.S. 6 Month Treasury	5.326	0.008
US1Y	U.S. 1 Year Treasury	5.021	0.022
US2Y	U.S. 2 Year Treasury	4.605	0.035
US10Y	U.S. 10 Year Treasury	4.194	-0.002
US30Y	U.S. 30 Year Treasury	4.341	-0.018

CNBC 기사

WSJ: The S&P 500 Is Poised for Best Start to Year Since 2019
올해 1분기 S&P 500, 2019년 이래 최고로 예상

- 증시 랠리가 여전히 투자자들을 놀라게 할 정도다
- 주식, 비트코인, 금값 등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 S&P 500 지수는 1분기에 10%까지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19년 이래 가장 좋은 1분기 상황이다. 증시의 약세 기간은 몇 세션에 지나지 않았으며, 투자자들은 가격이 떨어질 때 구입해 이 지수가 21차례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 경제는 계속적하여 기대를 넘어서고 있으며 침체 우려는 대부분 사라졌다. 기업 수익의 회복세, AI 성장에 대한 열광,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등으로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매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WSJ 기사

[뉴욕시]

Bloomberg: What Congestion Pricing's Arrival in NYC Would Mean
맨해튼 중심부 진입 '혼잡세'가 의미하는 것은?

- 맨해튼 외에 싱가포르는 이러한 조치를 이미 1975년부터 시행 중이고 스톡홀름은 2007년, 이탈리아 밀란은 2012년에 시작했다. 런던 중심부도 2003년부터 시작됐다.
- 맨해튼 진입 승용차와 트럭은 하루에 한 번씩 혼잡세가 부과된다. 60스트릿 남부지역으로 타임 스퀘어, 미드타운 사무실 빌딩 등이 포함된다. 택시나 영업용 차량의 승객들은 탈 때마다 더 낮은 요금을 지불한다.
- 피크시간에 승용차는 15불을 지불해야 하며, 이지패스가 없는 승용차는 더 높은 요금이 부과된다.

Bloomberg 기사

[미국 생활]

CNN Business: Some New England universities and colleges break $90,000 barrier for total cost in upcoming school year
뉴잉글랜드 일부 대학, 내년부터 학비로 9만 달러 넘는다

- 이번 가을부터 일부 뉴잉글랜드 대학의 학부 등록금과 비용이 9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 학교 공식 사이트에 따르면 예일, 터프츠, 보스턴, 그리고 웰슬리 대학교가 올해 학비, 주거비 및 기타 비용이 가장 높은 사립 교육기관에 속한다.
- 이는 상품 및 서비스 인플레이션을 넘어서, 상당하게 상승한 고등 교육 비용의 현황을 보여준다.

CNN Business 기사

[에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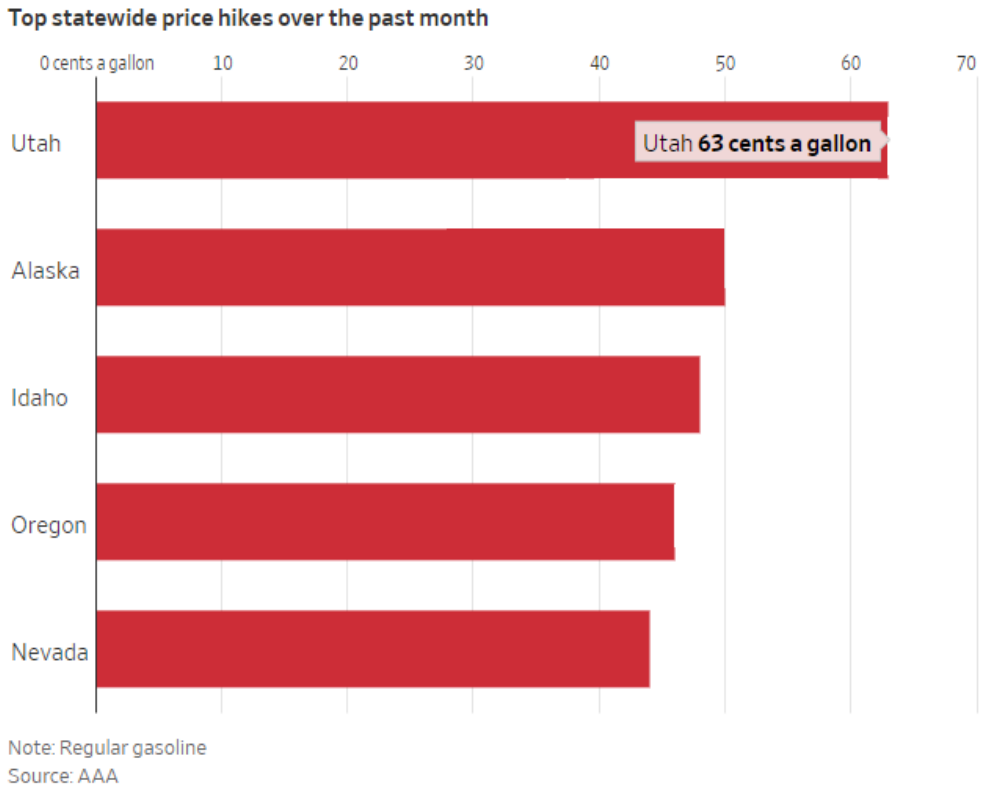
WSJ: U.S. Crude Oil Inventories Rose by 3.2 Million Barrels Last Week
지난주에 미 원유 재고 3백20만 배럴 증가

- 수요일 미 에너지 정보국(EIA)의 발표에 따르면 휘발유 재고와 더불어, 지난주 미 원유 재고가 증가했다. 정유업체들이 생산량을 늘렸기 때문.
- 전략 석유 비축유를 제외한 상업용 원유 재고는 지난주 3백20만 배럴 증가하여 4억4천8백20만 배럴을 기록했다. 이는 동기간 5년 평균보다 약 2% 낮은 양이다.
- EIA는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하루 1천3백10만 배럴로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원유 수입은 하루 6백70만 배럴을, 수출은 하루 4백20만 배럴을 기록했다.

WSJ 기사

WSJ: Why Gasoline Prices Are Rising Faster Than Usual This Year
올해 휘발유 가격이 평소보다 더 오르는 이유?

- 미국인들의 사용량과 정유소의 여름철 혼합 휘발유 고려할 때, 상반기 휘발유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국내의 악천후 및 해외의 지정학적 혼란으로 인해 2024년 휘발유 가격은 평소보다 빠르게 상승했다.
- 미국 자동차 협회(AAA)에 따르면, 수요일 휘발유는 평균 갤런당 3.54달러로 1년 전보다 3% 상승했다. 이는 2024년 초보다 대략 14% 상승한 가격이다.
- 이러한 상승세는 1분기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고착화된 상황을 만들었고, 강한 경제를 예측했던 미국인들에 압박감을 줬다.



WSJ 기사

[전기차]

Bloomberg: Tesla's $25,000 Car Means Tossing Out the 100-Year-Old Assembly Line
테슬라 2만5천불 전기차 출시하면 1백년된 조립 라인 방식 사라져

- 테슬라는 2만5천불짜리 전기차를 생산해 중국 전기차와의 경쟁을 이겨낼 계획을 갖고 있다.
- 그런데 이 경우 헨리 포드가 만든 1백년 된 자동차 조립 시스템이 사라지게 된다.
- 테슬라의 조립 방식은 전통적인 컨베이어 조립 방식이 아니라 로고를 쌓아 올리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대형, 직사각형 차량이 선형 컨베이터 벨트를 따라가면서 조립되는 것과는 달리 부품들이 특정 공간에서 동시에 조립된다. 마지막 단계에 함께 조립된다.
- 이런 방식으로 생산 공간을 40% 이상 줄일 수 있으며, 향후 공장 건설이 더 빠르게 그리고 저렴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Bloomberg 기사

WSJ: Fisker Slashes Prices on 2023 EV Models in Affordability Bid
Fisker, 2023년 전기차 모델 가격 인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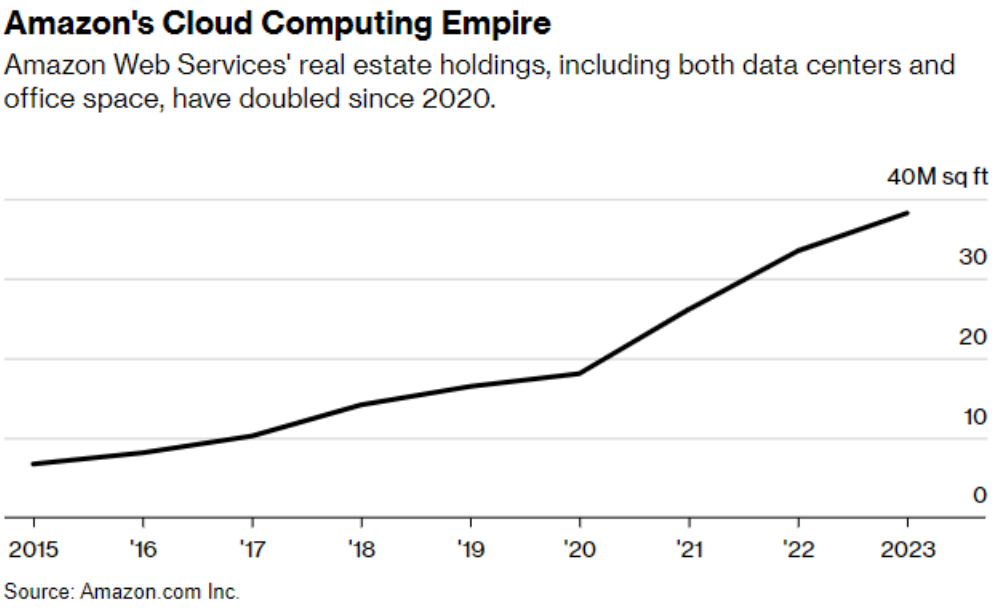
- 전기차 제조업체 피스커가 현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입찰에서 2023년 일부 차량의 권장 가격을 인하한다.
- LA에 소재한 해당 기업은 수요일에 Extreme, Ultra, 그리고 Sport trims를 포함한 2023년형 모델의 제조사 권장 소매 가격을 인하할 것이라 밝혔다.
- 피스커는 월요일에 대형 자동차 제조사와의 파트너십이 결렬됐음을 밝혔고, 이에 따라 그들의 자금 유동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Bloomberg: Amazon Bets $150 Billion on Data Centers Required for AI Boom
아마존, AI 데이터 센터에 1천5백억 달러 투자

- 아마존이 향후 15년 이내로 데이터 센터를 위해 1천5백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규모 클라우드 제공 서비스를 하는 이 회사는는 AI 및 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의 폭발적 수요를 감당할 화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 해당 지출은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에서의 압도적 지배력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다. 아마존은 클라우드 시장의 2위 업체인 Microsoft사 보다 약 2배에 달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 데이터 센터를 총괄하고 있는 AWS 부사장 Kevin Miller는 “우리는 상당하게 용량을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를 통해 고객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Microsoft Creates Tools to Stop People From Tricking Chatbots
Microsoft, 챗봇 속임수 막는다

- 마이크로소프트가 사람들이 AI 챗봇을 속이는 행위를 차단한다.
- 위싱턴주 레드먼드에 소재한 해당 기업은 목요일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Azure AI Studio에 새로운 안전 기능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Azure AI Studio는 개발자가 자신만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AI 비서를 구축할 수 있는 Open AI 기반 서비스이다.
- 해당 도구는 “프롬프트 쉴드(prompt shields)”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AI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치밀한 공격을 감지하고 차단한다.
- 마이크로소프트는, 해커들이 데이터에 악성 명령을 입력하여 사용자 정보 및 시스템을 빼내는 “간접 프롬프트 주입(indirect prompt injections)”에도 대응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보고서]

월러 연준 이사 "금리인하 서두를 필요 없어…물가지표 실망"

"인하 횟수를 줄이거나 시기를 늦출 수도"

크리스토퍼 월러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는 27일(현지시간)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으며, 최근 경제 지표를 감안할 때 인하 횟수를 줄이거나 시기를 늦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월러 이사는 이날 뉴욕 이코노믹 클럽에서 '아직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제목의 미리 준비된 연설에서 최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관련 지표가 "실망스럽다"면서 금리인하에 앞서 "적어도 몇달간 보다 나은 지표를 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성장과 노동시장은 지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데 비해 인플레이션 둔화와 관련된 진전은 느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ccsend.com